

황금농장을 찾아서

전북지원 선임평가사 나강호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위치한 황금농장 황금석 대표를 만나러 황금농장을 찾았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축사 지붕 일부가 망가져 지금 막 수리를 마쳤다며 너털 웃음과 함께 반갑게 맞아주셨다.

나강호(이하 나) : 서울에서 귀농하셨다고 들었는데 계기가 무엇인지요?

황금석(이하 황) : 특별한 계기는 없고 서울생활이 너무 각박해서 늘 고향으로 돌아가 소 키울 생각을 했어요. 농장 운영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이 없지요. 하하하.

나 : 그럼 언제 귀농하셨나요?

황 : 농장을 시작한 게 2002년도요. 월드컵 열기로 뜨거울 때 나는 한우 잘 키울 열정으로 뜨거웠죠. 한우 암송아지 6~7개월짜리 42두로 시작했어요. 정말 암졌도

몰랐죠. 수정시키고 첫 새끼 날 때는 잠도 못자고 들락날락 거렸어요. 내려와서 한 5년은 참 힘들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농장에 두수 늘리는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없었죠.

나 : 농장 현황이 궁금한데 규모나 사육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황 : 농장면적은 대지가 4,000평에 축사가 총 5동으로 축사면적은 1,200평정도 되요. 현재 사육두수는 400두 가량이고 송아지가 약 90두, 가임암소 120두, 미경산암소 60두, 거세 130두 정도네요. 서울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아들이 2년 전에 내려와 농장 일을 배우며 함께 일 하는데 작년에 결혼도 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한우 키우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기는 해도 정성들여 키운 소가 좋은 등급을 받고 수익을 크게

한우거세 육질등급별 출현율

(단위 : %)

년도별 출현율	1**	1*	1	2	3
2010	54.0	24.3	13.5	8.1	-
2011	20.1	27.6	14.9	14.9	-
2012상	33.3	50.0	8.3	8.3	-
2012상 전국	16.1	31.2	32.8	17.9	1.8

내주면 보람되고 기쁩니다.

나 : 사육하신지 10년이 되셨고 두수도 10배 가량 늘리셔서 귀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셨는데 성공 노하우나 황금농장만의 특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황 :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록관리죠. 기록이 남아있으면 결과가 좋건 나쁘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야 시행착오도 적게 겪고 수익과 연관이 됩니다. 국제 곡물가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죠. 사료비가 너무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해답은 자가TMR 이죠. 최적의 배합비를 찾는게 어렵죠.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품질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농장에 맞는 배합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량과 번식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량정액과 농장 실정에 맞는 정액을 확보하여 제가 직접 자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중이 커야 수익금이 커지겠죠? 하하하.

나 : 경영 등 제반환경이 안정되어 보이는데 농장운영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황 : 암소 미경산우 비율을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성적이나 가격 면에서 만족합니다.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거세의 경우 전년도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자가TMR 개선을 통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데 등지방두께가 많이 두꺼워 졌어요. 육량등급에서 C등급이 많아졌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눈앞의 숙제예요.

경영차원에서 계획이라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가배합 사료 원료를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고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를 최대한 활용과 꾸준한 개량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황대표는 마지막으로 사양관리 요령 한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다. 아침 저녁으로 사료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끝인 사람들이 많은데 소는 주인이 신경 쓰는 만큼 보답을 주기 마련이란다.

수시로 축사를 돌아보며 사료 한 번씩 풀어담아 주는 일이 사소한 일 같아도 굉장히 큰 일이라며 주인이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두류경연**

